

한쪽 얼굴 떨림 증상 지속땀 정밀검진부터 받아야

건강 바로 알기 안면 경련

광주기독교병원 신경외과
김보석 진료과장

눈 주위 느낌이 이상해 거울을 보면, 살짝 떨리는 것을 누구나 한번쯤은 겪은 적이 있을 것이다. 보통은 가벼운 눈꺼풀 떨림으로, 이런 증상은 4주 이내에 호전된다. 안면경축(Blepharospasm)이라고 양쪽 눈꺼풀이 감기며 눈 주변 근육이 떨리는 것일 수도 있다. 흔히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부족이라는 말이 있으나 학문적 근거는 없다.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과로와 수면부족, 스트레스, 눈의 자극 등으로 생긴다고 알려져 있다. 휴식을 취하며 시간이 가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떨림 눈에서 입 주위로 퍼지면 병원 찾아야 하지만 처음에 한쪽 눈 주위가 떨리기 시작하다가 입 주변까지 떨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반측 안면경련(Hemifacial spasm)을 생각해봐야 한다. 눈에서 입 주위로 퍼지는 것이 전형적인 증상이고 심해지면 턱, 목 주위로 퍼지며, 경련의 빈도가 잦아지고 지속시간도 길어진다. 사람의 뇌에는 신체기관의 운동 및 감각을 관장하는 12개의 뇌신경이 있는데, 이 중 7번째 뇌신경이 안면신경이며 얼굴근육의 운동을 조절한다. 이 안면신경에 비정상적인 전기신호 등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연결된 얼굴 한쪽 근육이 갑자기 경련하듯 떨리게 된다. 자

눈에서 입 주위로 퍼지며 경련 빈도 잦아... 뇌졸중과는 무관
비타민 부족 학문적 근거 없고 대부분 과로·스트레스 원인

신도 모르게 얼굴 한쪽을 씹도록거리며 일그러지게 되는 것이다.

반측 안면경련의 주된 원인은 뇌에서 나오는 안면신경의 기저부가 근처 뇌혈관에 의해 눌리며 자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혈관이 구불구불 변하게 되는데, 안면신경 근처 혈관의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년 이후, 주로 40~50대부터 증상이 나타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해에 안면경련으로 진료 받은 50대만 2만 명이 넘었고 40대, 60대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안면경련의 유병률은 10만 명당 남성이 7.4명, 여성이 14.5명이었다.

드물게는 안면신경 주변에 뇌종양이 발생돼 신경을 압박하며 생기기도 하고, 뇌졸중의 안면신경핵에서 이상이 발생되어 안면경련을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뇌혈관자기공명영상(brain MRA) 검사를 기본적으로 해보아야 하고, 안면근육 근전도 검사 및 정력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안면경련과 뇌졸중과는 무관·반측 안면경련을 뇌졸중의 초기 증상으로 생각하여 한약을 먹거나 침을 맞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안면경련은 뇌졸중과는 전혀 무관한 병이며, 한약이나 침은 효과가 없다. 치료는 크게 세가지로 약물, 보툴리눔 주사, 수술이다.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 카바마제핀

(Carbamazepine) 같은 항경련제, 항콜린작용약제, 안정제(Diazepam) 등이 있다. 하지만 효과가 적은 경우가 많고 근본적 치료가 아닌 증상 조절을 위한 치료이며 가끔 졸림, 어지러움, 기억력 저하와 같은 부작용 유발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보툴리눔 주사치료를 경련을 하는 얼굴 근육에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 Type A)를 직접 주사해 근육을 수축하지 못하게 하여 증상을 없애는 것이다. 간단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돼 현재 미국, 유럽을 비롯한 각 나라에서 반측 안면경련의 치료에 가장 일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효과는 좋으나 4~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한다. 부작용으로는 드물게 눈꺼풀이 처지거나 이중으로 보이는 복시현상, 안구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으나 증상이 경미하며 약 2주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다.

수술적 치료는 미세혈관감압술이라고 전신마취하에 귀 뒤 부위를 6~7cm 정도 절개하고, 지름 3cm 정도 두개골절개술을 한 후, 얼굴 신경을 누르는 혈관을 테프론(Tepron)이라는 안전한 물질로 떼어내는 것이다. 1960년대 말 Jannetta라는 미국의사에 의해 개발돼 사용되는 수술 방법으로, 증상 조절이 아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며 혈관에 의한 신경 압박이 원인이었다면 90%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드물게 뇌출혈, 정력손상 등 합병증 위험성이 있지만, 최근 수술중 모니터링 장



김보석 광주기독교병원 과장이 안면경련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기독교병원 제공)

비와 수술 기구의 발달로 비교적 안전하다 할 수 있다.

반측 안면경련이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지내다가도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자꾸 생기거나 하면 스스로 위축되어 대인기피증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방치하면 안면의 한쪽 근육과 반대편 근육이 비대칭으로 발달해 얼굴 모양도 비대칭으로 변할 수 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

어 증상이 심해지면 치료가 필요하다. 편측 눈꺼풀 떨림이 4주 이상 지속되거나 얼굴 다른 부위로 퍼질 때에는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본적인 치료인 미세혈관감압술은 비교적 안전하고 치료율이 높으므로 신경외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병원 심혈관계융합연구센터 잇단 학술상

박대성 교수 최우수상·기해진 교수 학술상 수상

전남대병원 심혈관계융합연구센터(센터장 정명호 순천기내과 교수) 소속 연구 교수들이 잇따라 학술상을 수상했다.



박대성 교수

박대성 연구교수는 한국중재의료기학회에서 최우수상을, 기해진 연구교수는 대한고혈압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기해진 교수

박대성 연구교수는 '비폴리머 타크로리무스 약물 용출 스텐트: 펩토초를 조사한 나노 기공 도입'이라는 연구결과로 2020년 한국중재의료기학회(회장 정명호 교수) 추계학술대회 기초부문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의 연구결과는 국내 특허등록에 이어 최근 미국특허에 출원된 것이다.

연구 내용은 비폴리머 약물 용출 스텐트의 제조 공정에 사용될 수 있는 별도의 표면 결합 작용기 도입 공정이 도입되지 않으면서도 타크로리무스 약물

을 스텐트 상에 강하고 안정적으로 결합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며, 약물의 총량이 더욱 크고 약물 용출 지연성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기해진 연구교수는 '안지오텐신 II 고혈압 쥐에서 히스톤 디아세틸라제 8억 제제의 혈관 비대, 이완 및 염증 개선효과'라는 제목의 연구로 대한고혈압학회 학회지 'Clinical Hypertension'에서 학술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된 연구는 지난 2017년 대한고혈압학회 연구비를 통해 수행한 것으로 2019년 Clinical Hypertension에 게재됐다.

연구 내용은 히스톤 탈아세틸화효소 8(HDAC 8) 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PCI34051가 안지오텐신 II (angiotensin II)로 유도한 고혈압 동물모델에서 혈압을 강하시킨다는 것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기독교병원 결핵 2차 적정성평가 '만점'

2020년 민간·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 평가 우수 병원

광주기독교병원(병원장 최용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결핵 2차 적정성평가 결과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데다, 2020년 민간·공공협력(PPM) 국가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해 100여 년에 이르는 결핵치료 병원의 역사를 증명했다.



최용수 교수

심평원이 수행한 결핵 적정성 평가는 결핵 진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결핵 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차 평가에 이어 2019년 2차 평가를 실시하고 이번이 그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결핵은 결핵균의 공기매개 전파를 통해 발생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발생률 및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격리와 장기치료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질병이다.

최용수 광주기독교병원장은 "광주기독교병원이 결핵 적정성평가와 민간·공공협력(PPM) 국가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결핵치료에 헌신했던 의료선교사들의 감동적인 진료현장을 계승하고 있는 의료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시대와 사회의 요청에 부응하는 최고의 의료를 시행해 지역의 건강지킴이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기독교병원은 1900년대 초반부터 의료선교사들에 의해 한센병, 결핵 등 시대의 난치성 질환자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결핵 전용 격리병동을 운영하면서 최고수준의 치료를 통해 결핵치료 100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한의사회·건보협공단

'축탁의 지역협의체 간담회'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은 최근 '2020 축탁의 지역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국민건강보험 광주동부지사 박은화 센터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간담회에서는 축탁의 지역협의체 위원 구성 현황 보고, 2020년 축탁의 지장 현황 보고, 한의사 축탁의 활동 애로 사항 공유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협의체 위원으로 광주시한의사회 측 김광겸 회장, 최의권 수석부회장, 동구한의사회 조현우 회장, 배남규 보험이사, 박상준 지부대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 측은 최 위성삼 요양운영부장, 광주동부지사 박은화 센터장, 한사랑노인요양원 강지원 시설장이 참석했다.

김광겸 회장은 "광주시한의사회는 축탁의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에도 더 많은 한의사들의 축탁의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